



대학 외국어 교육의 미래

임 상 우 | 서강대 사학과 교수

I. 들어가며

세계화의 시대에 있어 외국어 교육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학령전 아동들에게도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하는 일종의 유행이 한국인들의 외국어 교육, 특히 영어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을 단적으로 드러낸다고 하겠다. 이러한 외국어 교육 열풍이 과도한 것이든 아니든, 대학에서의 외국어 교육은 그 교육 기관의 성격상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외국어 교육의 존재에 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을 듯하다. 그러나 그 교육의 방법과 형식에 관해서는 그 동안의 논의가 충분했다고 볼 수는 없다. 대학이 고등교육기관이므로 거기서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외국어 교육은 그 내용과 질이 수준급일 것이라는 안이한 판단이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II. 외국어 교육의 변화하는 환경 조건

한국의 많은 대학들이 새로운 세기에 대응하는 대학 발전의 비전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앞다투어 제시하고는 있지만,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문

화적 추세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가는 미지수이다. 새로운 시대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미있는 변화 중에 외국어 교육에 대한 환경에 관련되는 몇 가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추려볼 수 있겠다.

광복 이후 서구적 근대 교육이 우리나라에 자리 잡아 나갈 즈음 한국인들은 미국 문화의 압도적 영향 아래에서 세계와 접촉했다. 그에 따라 대학 졸업 후 어느 분야에 진출하더라도 영어의 숙달도가 직장에서의 안정성은 물론 출세까지 좌우할 만큼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 중학 입학 후 교육과정에서 영어에 할당되는 시간은 어느 모로 보나 모자란다고 할 수 없었고, 대학의 교육 과정에서도 그 연장선상에서 영어에 대한 각별한 노력이 기울여졌다. 학생들 각자는 개인적으로 별도의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영어 습득에 열중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개인적 학습의 방법이나 대학에서 답습했던 영어 교육 방법은 결코 최선의 길이라고는 할 수 없었다. 문법 위주의 교육 방법, 무작정 단어 외우기, 문어체 중심의 독해에 대한 강조 등이 학생 일반에게 일정량의 영어 숙달도를 담보할 수 있었고, 전문적인 학문 분야로 진출했던 학문 후속 세대에게 새로운 외국의 이론과 학술적 기능을 습득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리

“

지난 세기 후반 급격한 산업화의 기적을 이루어 온
우리나라는 외국어 학습 및 사용에 있어서도 그만큼 급격한 환경의 변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추구했던 산업화 시대의
외국어 학습 방법은 그 성공적인 산업화의 열매를 향유하며
각종의 새로운 학습 환경에 익숙하게 자라난
신세대에게는 더 이상 어울리는 것이 아니었다.

”

나 이렇게 '형설의 꿈'을 쌓는 듯한 외국어 학습은
실생활에서 외국인과의 직접 접촉의 기회가 늘게
되면서 거의 무용지물임이 드러났다. 지난 세기 후
반 급격한 산업화의 기적을 이루어 온 우리나라는
외국어 학습 및 사용에 있어서도 그만큼 급격한 환
경의 변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추구했던 산업화 시대의 외
국어 학습 방법은 그 성공적인 산업화의 열매를 향
유하며 각종의 새로운 학습 환경에 익숙하게 자라
난 신세대에게는 더 이상 어울리는 것이 아니었다.

이러한 변화 중에 우선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신세대의 문화적 감수성의 변화이다. 우리의
신세대는 그 성장 과정에서 과거와는 대단히 다른
교육 및 학습 환경에 친숙해 있는 세대이다. 정해진
교과서와 참고서에 대한 반복 학습과 교실에서의
교사들의 일방적 지식 전수에 익숙했던 이전 세대
들과는 달리, 학교 안팎에서 다양하고도 빈번한 감
각적 접촉을 통해 사물을 즉각적으로 인지하고 평
가하는 능력을 소유한 감성적 세대인 것이다. 특히
외국어 습득에 있어서는 외래 문화와의 일상적인
접촉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로 생활 속에
서 음악, 만화, 인터넷 등 대중 문화적 차원에서 외
국어를 체득하고 있는 세대이다. 이러한 학생들에

게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원칙에서 외국어 학습이
기획되고 교수되어야 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또 하나 지적해야 할 사항은 최근 들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다중매체(multimedia)의 일상적 사
용을 들 수 있다. 시각·청각은 물론 감각의 모든
측면을 동원하여 총체적인 인식과 반응을 추구하는
신세대의 학생들에게 녹음 테이프를 들려주며 따라
하라는 식의 고식적 외국어 교육 방법은 더 이상 유
용하지 않은 것이 물론이다. 이러한 추세는 역설적
으로 초·중등 교육 기관에서 먼저 감지하고 있는
것 같다. 물질적 투자가 전제 조건이긴 하지만 일선
의 초·중등 학교에서는 미디어 교육이 점차로 강
조되고 그에 따른 시설이 확충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반해 대학에서 그러한 시설에 대한 투자가 오
히려 미흡하다는 것은 대학이 외국어 교육을 지극
히 강조하는데 비추어 볼 때 역설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대학에서 외국어 교육에 대해 전면
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다.
주지하는 대로 국제화의 시대에 발맞추어 수많은
학생들이 외국에 빈번하게 내왕하고 있다는 점이
다. 대학생 집단만 하더라도 외국에서 장·단기간
성장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의 상당수가 입학 제도

의 도움을 받아 한국 대학에 입학하고 있고, 일반 학생들이라 하더라도 외국에 나가 6개월이나 1년 쯤 어학 연수를 받고 돌아오는 것은 유행을 넘어서 학생들 사이에 거의 필수적인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실정의 공과를 논하기에 앞서 대학의 외국어 교육이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해 주어야만 한다는 강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 밖에도 많은 학생들이 취직 및 유학 준비를 위해 대학에서보다 오히려 좋은 시설과 교육 내용을 갖춘 사설 학원에 출입하고 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Ⅲ. 대학 외국어 교육의 현황과 바람직한 미래

대부분의 한국 대학은 외국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실상에 있어서는 '교양 영어'라는 교육과정에 한정되어 있을 뿐이다. 국제화 시대에 있어 다양한 문화와 언어의 체득은 필수 불가결한 일이지만, 재정적 또는 교수 구성의 한계에 의해 많은 대학들이 영어 교육을 외국어 교육과 등가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몇몇 대학들은 교양 필수과목 또는 중핵 교육과정으로 3~6 학점의 외국어 과정을 학생들에게 부과하고, 영어 이외에도 학생들의 선택에 따라 독어·불어·중국어·일본어 등 세계의 주요 언어 중 하나를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어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고 본다.

대개 교양 필수과목으로서의 영어 교육으로 한정되어 있는 외국어 교육에 있어서도 그 실상을 들여다 볼 때 위에서 말한 국제화의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다. 언어 교육에는 다음의 네 가지의 조건들이 만족되어야만 바람직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일대일 학습이 가능한

소규모의 강의 인원(15~20명 이하), 단순한 시청각 교재를 넘어선 멀티미디어 교육 시설, 가능한 한 원어민 교수자의 확보,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교재 내용과 교수 학습 방법 등이 그것이다. 대학에서는 초·중등 학교에서의 정규 교육 과정과 기타 개인적인 배경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외국어 교육의 현황을 직시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른 교육 내용 및 교육 환경에 대한 획기적인 투자를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미흡하다고 밖에 할 수 없는 한국 대학의 외국어 교육 환경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상당히 많은 수의 대학들이 매우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유연한 제도를 마련하여 새롭게 외국어 교육을 강조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첫째, '졸업인증제'라는 이름으로 시행되는 제도인데, 대학 4년을 졸업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학칙에 규정된 학점 이수이외에도 별도로 정해진 외국어에 대해서 일정 수준의 이상의 능력을 인정받아야만 졸업할 수 있는 제도이다. 외국어 능력 인정 방법은 정규 교과목에서의 일정 성적 이상 또는 교내외에서 행해지는 인증시험의 통과 등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그 유연한 운영의 관건이 되고 있다.

둘째, 졸업인증제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맥락에서 이해해야 하는 '외국어 인증제'이다. 일정량 이상의 외국어 과목 학점이 교양필수 또는 중핵과목으로 부과되기는 마찬가지지만, 그 과목을 정규 수업에서 이수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학칙이 정한 다양한 방법으로 그 이수를 인증받는 제도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최근에 대학에는 다양한 국제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입학하고 있고, 심지어는 입학 선발시에 자신이 택한 외국어로 논술 고사를 치르고 입학하는 학교까지 있는 형편이므로, 이들

에게 일반 학생과 똑같이 천편일률적인 교양영어를 가르치고 있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졸업하기 전까지 교내외의 인증시험 등을 통해 외국어 필수 학점을 대체해주는 이 제도는 그만큼 학생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고 유연한 학사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자질을 특성화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또 한가지 대학이 동원할 수 있는 외국어 교육의 대체 방법은 대학의 특성에 따라 대학이 병설하고 있는 각종 부속 교육 기관을 학교의 정규 교과 과정과 적절히 결합하여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이다. 평생교육원, 사회교육원, 외국어 교육원 등 여러 가지로 불리고 있는 어학 교육 기관은 그 원래의 목적은 지역 사회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만,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정규 학생들에게 유연하고도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에 적극적으로 그 활용을 고려해야 한다. 교육 관련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학점인정제'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재수강의 기회 및 방과 후 시간 활용의 기회를 보장할 수도 있고, 단기 및 장기의 집중 과정을 통해서 보다 심도있는 '외국어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도 있다. 이 모두 정규 교육 과정에서는 제도의 경직성 때문에 시행하기 어려운 제도이므로, 부속 교육 기관을 최대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IV. 맺으며

이상에서 살펴 본대로 한국의 대학들은 외국어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새로운 교육의 제도, 시설,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마련하여야 할 시점이 도달했다고 본다. 대학의 종합적인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가 시급한 때이지만, 대학에서의 외국어 교육은 시중의 사설 학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자인해야 할 때가 온 것도 사실이다. **■**

임상우

서강대 사회과를 졸업하고 미국 마이켈대학에서 석사, 뉴욕주립대에서 박사 학위(역사학)를 수여받았다. 서강대 사회과 교수로 재직하며, 서강대 학생처장 및 입학처장, 한국서양사학회 감사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서강대 국제문화교육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막스 베버의 정치활동』 등 서양 지성사 및 사학사 분야에 다수의 논문이 있다.